사업비 70억 확보… 서면1번가 부활 프로젝트 날개 달았다

정부 단위 상권활성화사업 공모 최종 선정
27년부터 5년간 빛거리 조성 등 사업 추진
크리에이터 육성, 빈 점포 활용사업도 기대

‘서면1번가 자율상권구역’이 지난 4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시 주관 ‘2027년 상권활성화사업’ 공모에서 지원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부산진구가 확보한 사업비는 총 70억 원이다. 이는 부산시 구·군 자율상권구역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든든한 재원이 마련된 만큼 서면1번가의 부활 프로젝트 추진에 힘이 실리게 됐다.

구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최대 5년간 상권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쇠퇴한 서면1번가자율상권구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서면1번가자율상권구역(신천대로62번길 및 서면로68번길 일원)은 총 면적 6만7,516㎡, 직선거리 약 730m 규모의 전형적인 중심 상업지역이다. 부산진구는 향후 상권 관리 주체인 자율상권조합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

총 7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는 △빛거리 및 특화거리 조성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빈 점포 활용 사업 △서면1번가만의 특색 있는 축제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서면1번가자율상권조합 전재준 이사장은 “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면1번가 일원이 지속가능한 상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합과 상인, 임대인이 하나가 되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경제관광과 경제정책계(605-4482)

“이론 실습 멘토링까지… 부산진구 창업 교육 좋아요”

‘스타트업 창업가 양성과정’
예비·초기창업자 15명 수료

“현장경험 풍부한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선배 스타트업 CEO들과 진행한 멘토링 및 네트워킹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서 참으로 유익했습니다.”

최근 ‘부산진구 스타트업 창업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15명이 이구동성으로 교육의 우수성을 칭찬했다. 이 과정은 부산진구가 예비·초기창업자의 역량 강화와 성공적인 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2일부터 5월 14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총 12회에 걸쳐 진행됐다.

평소 창업에 관심은 있으나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

을 제공한 것이 주효했다.

교육 내용은 △창업 아이템 발굴 방법 △지식재산권 이해 및 등록 방법 실습 △SNS 중심의 마케팅 전략 수립 △정부지원사업 이해 △공모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 등 창업 과정 전반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생의 95% 이상이 교육 내용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실질적인 성장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창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일자리산업과 창업지원계(605-8591)

청년상권운영단 전포사잇길 상인회
부산마케팅고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청년친화도시 부산진구가 추진하는 ‘2026년 통합 청년상권운영단’ 구성원인 전포사잇길 상인회(좋은사잇·회장 이상인)와 부산마케팅고등학교(이하 부산마케팅고)가 5월 7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문직업교육 인적자원 교류를 시작으로 실습시설 활용, 현장실습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마련됐다. 지역 청년상권과 직업교육기관이 협력해 상호 발전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현장실습 장소 제공 및 교육 지원 △부산마케팅고 졸업(예정)자의 선취업·후진학 지원시스템 구축 △취업률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사항 등이다.

전포사잇길에는 청년 창업가가 운영하는 카페와 베이커리, 공방, 디저트 전문점 등이 밀집해 있어 학생들

이 실제 산업 현장을 경험하고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 이를 통해 현장실습과 취업 연계, 지역 기반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산학협력 효과가 기대된다.

문의 : 일자리산업과 청년지원계(605-6342)

고유가 피해지원금
‘찾아가는 신청’ 운영

부산진구는 고유가로 인한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번 서비스는 온라인 카드 신청이나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 중이며 신청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신청 접수를 지원하고 있다.

부산진구는 전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노인단체, 요양시설, 경로당, 장애인 시설 등과 연계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통장 등 지역 사회적 관계망을 활용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단순 신청 지원을 넘어 현장 방문 시 생활 실태를 함께 점검하는 등 촘촘한 복지 행정을 병행할 방침이다.

문의 : 경제관광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TF(605-8686)